

宣教60~70周年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 1、社会에 變革을
- 2、教会에 革新을
- 3、世界에 所望을

## 단기 선교사 다섯분의 보고



최기석

이준묵

김기현

※.....우리총회의 선교60-70주년기념 선교계획의 하나인 개척전도를 착수하기위해 본국으로부터 단.....  
※.....교사 다섯분을 맞이했다 1월 23일부터 3개월간 岡山 静岡 佐世保 桑名 立川로 정하여.....  
※.....각각선교를 시작하였다 큰 성과를 기대하는 이 목사님들의 임지에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기 선교사들의 수고를 헛되게 되지않게 하기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라는 주제에 따라 금후도 계속 개척전도를 해나가야 겠다 (2면에도 있음).....



장상우

## 복음의 씨 뿌리자

### 영을 구원하는 일 성급히 행하자

岡山 최기석

지난 2월 18일 西大寺에 병합한 이곳 오카야마는 인구 50만을 보유하면서 山陽新幹선 공사는 더욱 시발전에 부채질을 해주고있다 시민은 상업 공업 과수 재배등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있다 이중에 일본인 교회가 20여 처가있다

#### (2) 교포의 현황

이곳 오카야마현 안에는 교포 7400여명이사는데 단안에 등록된 사람의 수가 4300명이다 그리고 시내에 사는 민단제의 세대수는 215세대가 있다 이들의 생활은 대부분 중류급에 속한다고 볼수있다

#### (3) 선교의 시급성

이곳의 우리교포들은 대화속에서 주어지는 결론은 유물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불러 이르게 주고있다 즉 그들은 잘살기위해 산다는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잘죽기 위해 산다는 차원이 다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못하다 육은 잘사나 영이죽어가는 현상이라 아니할수 없다 여기에 시급한 것은 생명을 던져 영혼을 구원함이라 하겠다 또한 교포 중에는 과거에 믿든사람 세 배받은사람 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교

회가 없어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조련제에 등록된 사람도있다 이런점에서 우리의 선교사업이 늦은감이 있으나 이제부터라도 선교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영혼이 주려갈한 교포들을 구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런점에서 나는 선교의 어제와오늘 그리고 내일에 다음과 같이 적어본다

#### (4) 선교현황

믿는가정 두집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믿든사람을 찾아 나섰다 다음으로 믿는이의 연고자 친구 친지로

찾아 다녔다 이리하여 40일의 과거가 남겨준 오늘 의 결산은 심방 세대수가 13세대 재적 교인이 22명 주일 평균출석 16.7명이다 연보가 매주 평균 45 00원 정도다 그런데 22명의 교인중에는 입교인이 13명 학습인 1명 세례인이 6명 원입인이 6명으로 되어있다 나는 이곳에서 앞으로 교인 30명을 만들어 보고저 안간힘을 써보고저 한다 그리고 교회가 없어 가정에서 집회하든중 3월 2일부터는 금주회관에서 예배를 보게된 것이다 또한 단기선교사의 임무가 끝나 귀국한 후에도 계속 교역자의 파송이 없이는 공든 탑이 무어질 염려가 없지 않을것을 부언해 두는 바이다

### 버리지 마시오 이 고장 静岡를

静岡 李俊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하나님앞에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어 보고할 용기도 없으나 보고할 의미가 있어 몇가지를 보고하겠읍니다

#### ① 그간한일

▶静岡市 거주 동포 각명단 작성▶인사장과 전도지 220장 각집에 우송▶호별 방문▶특별집회

특히 전도집회를 위하여 강사를 전영복목사를 부탁하고 안내장 129장을 각집에 우송 포스터를 부치고 전화연락과 가정심방으로 수단을 다하여 선전을 하였으나 그결과란 첫날밤은 2명이고 다음날은 한명도없었다

▶제2차로 전도지 인쇄192호에 우송▶일본교회 지도자들과의 대화로 과거 일본인과 일본교회가 잘못을 반성케 할일

#### ▶모국 본인이 섬기는 교회와의 관계

(1)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밤과 새벽에 특별기도회를 계속하고있음  
(2)본인을 격려하고 교회실정을 보고하여온 편지가 70통 (3월21일현재)  
(3)이로 인하여 많은 격려와 힘이되며 책임은 가중하여짐

#### ② 내가받은 교생

▶처음 1개월간 열심으로 일하여 무엇인가 결과를 남기고 가야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때 한사람도 협력자가 없어 완전 고독에 빠져 받은 심적 고통은 나의 목회30여년에 처음당한 고통▶가정심방에도 사람만나기가 어렵고 만나면 냉대함에 받은 고통▶기성신자들의 무관심▶특별집회에 사람이 모이지아니한 나의책임감

제중묵



#### ③내가 받은 위로

▶横浜清水ヶ교회 倉持芸雄 목사부처가 물김양면으로접대하여준일▶静岡市임마누엘교회 松村 목사의 따뜻한 친절▶동포중 한사람이 자진 찾아와 전도할 기회를 가진일▶일본인 교회지도자들에게 한국교회와 일본 자기나라에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한일

#### ④총회에 요청

▶총회에 잘못된일-10여년간 인사문제에 무책임하였다는것

#### ▶앞으로 하여야할일

조속한 시일에 静岡市를 완전독립하여 상임전도자로 10년 선교사업을 추진할것

### 머지않아 교회가 설 것이다

佐世保 嚴機鉉

#### ①경과

선교지 佐世保에 도착한것은 1월 28일 였다 2월2일에 나의 환영예배를 가졌는데 20여명의 참석으로 은혜스러운 모임이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전도소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모이기 힘들므로 편리한 곳《潮見町5-2》에집을 얻어 2월3일에 옮겼다 4~5일은 특별 전도집회를 가져 서남지방에 속한 각교회 목사가 와서 협력하여 주시고 또 서남지방회 부인회 회원들 그리고 주福岡 흥 부영사가 동행하

여 우리모임에 대한 협조를 받아 이전도집회는 큰 성과를 가진것같다 이이들간의 전도집회에 출석자는 연 70명이며 그 가운데는 민단단장 의장등 각역원들도 모여 감명깊은 모임였다

주간은 박창우 전도사와 김수년집사 서로 합심하여 전도지와 안내장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살고있는 교포 전체가정을 방문하였다 특히 민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조하모로서 민단관계 인사들도 적극협력을 받게됐다 (2면에계속)



# 승 리 의 부 활

마 태 28 : 1~15 채 중 목

부활절을 맞이하여 승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로 은혜 받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창조해 주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탄생과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은 모두 부활의 순간을 행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고애와 죄를 의미하고 있으나 부활은 생명의 환희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어두운 비애의 눈물의 골짜기요 부활은 승리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부활이 의미하는 승리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부활은 불멸의 기쁨과 안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확신을 통하여 항상 생명의 승리의 기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울사도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있느냐」하고 말하였는데 사실 사망을 대적하여 승리할 자 없는것입니다 사망은 만능이라고 하는 돈을 이깁니다 죽음은 과학과 모든 권세를 물리칩니다 돈 많은 사람도 세도있는 사람들도 철학자도 이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 굴복하고 맙니다 과연 죽음은 인간의 최대의 강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은 가운데서 다시살으심으로 인간의 최대의 원수인 사망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은 인간들의 간절한 요구와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니 너희도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리라 하신 말씀이 곧 인간들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도 살고 또한 무덤이 인간의 최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의 부활은 악에 대한 의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목박을때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런 범죄사실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무죄 석방 할것을 제의 하였으나 악의 노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목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가장 교만하고 독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세속주의자들이며 권세욕이 가득찬 사두개인들과 비양심적이며 무책임한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등 모든 악의 세력이 합하여 흠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목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승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였읍니다 이들이 죽인 예수는 말씀하신대로 삼일만에 다시 부활 하시였습니다

사실 예수의 부활은 악에 대한 선의 승리이며 허위에 대한 진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의 부활은 세상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 들의 최고 통치 기관인 산헤드림에서 예수를 심문하고 거짓증거로서 그를 재판하였읍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사형할 권한이 없으므로 「로마」 제국을 대표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를 심문하여보니 아무런 죄도 발견 할수 없었으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목박아 죽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제국은 예수의 무덤을 인봉하였고 저들의군인으로 무덤을 엄하게 수직하였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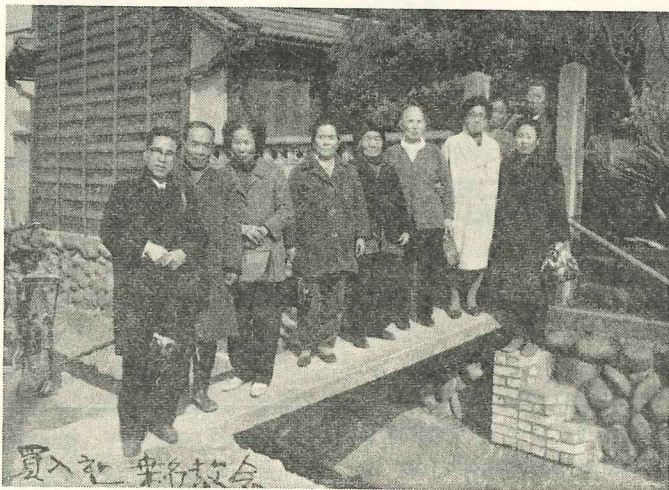
그러나 일해중 첫날 새벽에 큰 지진이 나고 무덤은 깨여지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는 로마제국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는데 이것은 세상나라에 대한 하나님나라의 승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시록 11:15에 말씀하신 세상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예언하신 말씀이 그때가 반듯이 올것입니다 세상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나라

(단기선교사 다섯분의 보고)

## 첫 열매가 맺었다

桑 名 康 相 禹



桑名전도소는 1965년 12월 5일 총회의초청으로 내가 외지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이곳에서 개척전도를 한곳이다 그때 일년일 개월 선교하고 귀국한후 신학연구차 내일한 학생들로 매주일 인도케 하든중 2년 3개월만에 다시 이번기회에 이곳 桑名에 오게된 것이다

다시금 교수들을 수습하고 전도를 시작했다

특히 감사할것은 지난 2월 24일 시내福江町에 가옥을 계약 매수 한것이다 이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민

단계 교포들이 집중한 곳 이어서 앞으로 전망은 아주 밝다 우리총회와 여전도연합은 물론 민단체 여러분들이 많은 협찬을 주어 실로 감격한 일이다 이것은 10개년 선교계획사업의 첫열매이고 여호와의 승리인 동시에 민족의 자랑이라 할수있겠다

나의 전도목표는 교포가정을 방문하는것과 또 야간에 민족교육을 하는것이다

桑名전도소는 현재 재적이 19세대에 26명 매주일 출석자는 12 3명이다

## 이미 기초는 되어있다

立 川 채 중 목

하나님 은혜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로서 부족한 사람이 「立川」에서 무사히 일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立川」에는 미 공군기지가 있는곳으로써 東京중심지에서 떠러진 외각지대로서 발전된 신흥도시라고 할수 있는곳 입니다

이곳에는 교포가 약1600명 살고 있는곳으로 많은 교포들이 생활에 불안을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정형편을 보면 유능한 사람들은 귀화하였고 또한 일본여자와 결혼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것을 발견하였으며 그들의 가정을 찾아 방문하면 이상한 감정으로

대하여 주며 퍽어색한 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젊은 이세들은 일본여자와 결혼하게 된것은 우리교포들과 서로 만나 친교할 기회가 없어 자연자조 상중하는 일본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교회는 이점에서 늘리 교회를 개방하여 젊은 세대들의 친교의 장소를 마련하여 주어 야만되겠다고 생각 됩니다

立川에는 이미 3년전부터 오운태목사님이 시무하시는 동경교회에서 개척전도를 하는곳으로 그동안 황재열목사님이 맡으셔서 일하고 계셨으며 동경교회여전도회에서 파송한 신의섭집사가 매주 가정방문을하면서 일하고있어 이미 기초는 서있는곳으로 앞으로 유망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회장 오목사님은 이 지대에 대하여 큰 꿈을가지고 있는것을 보았는데 힘쓰면 불원한 장래에 그꿈이 형태로 이루어질것으로 믿읍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판동지방회가 연합하여 총력을 기울여서 立川 선교를 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것을 믿어마지않읍니다

(1면부터 계속)

## 佐世保의 보고

②매주집회 상황  
가) 주일예배 12명정도  
나) 밤 예배 5 "  
다) 기도회 5 "  
라) 교회학교 5 "

※ 우리말 공부  
국어공부는 어린이와 성인반을 따로하여 어린이반은 일요일밤 7-9시에 가지고 박창환전도사가 지도하고 성인반은 월요일과목요일 7-10시 지도는 내가 하고 있다 학생수는 어린이가 약20명 성인이 약10명이다

※ 앞으로 계획  
4월3-4일에 전도집회를 가질예정이다

③앞으로의 전망  
그동안 박창환 전도사와 김수년집사가 2년간 주교를하여 기초가 되어있기때문에 전도의 전망이 밝으며 머지않아 교회가 설것이라 믿어진다

끝으로 서남지방 각교회 목사님 여전도회 그리고 여러교회가 佐世保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第1回 自由を守る会

## 在日韓国人と靖国神社

3月9日(日)80名(うち日本人15名)の良識者を迎えて大阪教会にて、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自由を守る会の主催によって、当面する、靖国神社問題について松井昌次弁護士を迎えて開かれた。松井師は「人間そのものへの挑戦だ……。日本の国のために、警告してもらいたいし、連帯の中で、キリスト者の歩みをした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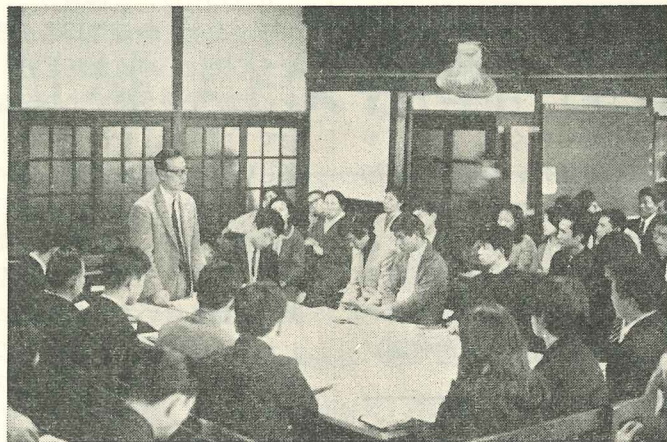
熱心な討論の末、3時間にわたる会議を終えた。今後、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の社会責任を色んな形で、真面目に研究していく必要を、皆が痛感しカンパ、9707円が集まった。

## 靖国神社国営化

## 問題について

金 哲 顕

私達の身の廻りには、政治は自分達の関心事であ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意見を持っている人達がたくさんいるようです。そういった人達は、このような類の考えを持たせたものが、何か支配や被支配を超える崇高なことわりであると思いきすれ、事実は、政治家達であり、歴代の支配者であったところの日本政府当局であったことにほとんど気がついていないのでしょう。戦前のすべての期間を通して私達の親達が日本政府の報道機関によって、眼も口も耳も塞がれ欺かれたためにその愚を見抜けず相互の連帯を失い多くの同胞が孤立して殺され他の者は甘言に乗せられて国を売ったのでした。政治家にとって愚民はいつも扱い易いものであるのは当然です。それ故にあらゆる手段を通じて政治家は私達に対して真理を被い隠してゆくでしょう。「真理は自由を得させる」故に、逆に、不真理の支配は自由が破壊された恐怖政治でありましょう。それが眼や口や耳をふさがれ欺かれた戦前の被支配の残酷な当然の帰結でありました。私達が、一見日本のみの問題であるかのように思われる「靖国神社国家護持」に反対するといいますが、かつての被支配の繰りかえしがそれに



よってまさに第一歩をしるされたと考えているからであります。私達の韓国が、私達の政治に対する無思慮あるいは無関心のために忌まわしい被支配をうけたのであれば、いまや私達は日本の動向に大きく眼を見ひらき、政治的悪魔の策謀の語らいを一語も聞きのがすことなく同胞に知らせ、再び繰りかえされんとする日本政府の侵略的魔手から祖国を守らねばなりません。

靖国神社国営化によって日本政府が狙っているのは何でしょうか。それは神社神道によって国論の統一を図り、強力な天皇制の復活によって精神的に武装された軍国主義神国日本であります。この答えこそ私達に親達の死や苦闘を思い起こさせ、現在の辱しめに歴史的な光を照らし、私達の心を反抗へと駆りたてているものなのです。

靖国神社に奉祀されている諸霊は侵略者のものではなかつ

たでしょうか。そして日本の侵略的軍勢力が私達の韓国をじゅうりんしなかったことがあるのでしょうか。靖国神社を国営化することはとりもなおさず過去のすべての侵略政策の肯定であり、新たな侵略戦争の準備以外のなにものでもないでしょう。靖国神社の国営化は言うまでもなく国教の制定であり、信教の自由の否定であります。私達は外国人であるとしてもこの憲法違反を肯定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しかし「在日韓国人」にとってさらに重大な事が生じてきます。私達は日本の保守政権が韓民族に対して持つ軽べつ感情をよく理解しています。そして彼等の国粋主義的排外主義が

あらゆる法制的地平において私達の生活権を脅かして来つつあることも悲痛な心境で心得ています。靖国神社国営化はそれが本質的に持つ国粋主義と異教的偶像崇拜性によって、数年後、私達の息の根を止めるべく働き出すに十分な内容を持っているのです。このような事柄に私達は無関心でいられるでしょうか。しかしさらに重大な事がそれらの後に結果しそうな気配が存在します。「祖国の侵略」であります。歴史は日本の国粋主義が侵略主義でもある事を教えています。

私達はこの問題の前で無関心であることを許されてはいないでしょう。なぜならこの問題に祖国と自己の生命がかけられているからです。(投稿)

## 関西高等部修養会 私たちの進路

— ことばと行為 —



## 誓いを新たに

3月25日～27日、2泊3日大甲YMCAセンターで42名の男女高校生が集まり、快晴の三日間、美しい自然の中で楽しい交わりと真剣な討論の場を持った。

近來にない盛況振りであった。特に、高校生自身の献身的な準備と指導教師との一体が功を奏したといえるし、又現在の在日韓国人の立場をじっくり見つ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緊迫感もあわさっている。今後、教会との交わりを如何にするかが大きな問題である。講師、金元治、裴瑛煥、姜仁道、崔忠植

ボーイスカウト方式による指導には大きな興味を覚えた。主題も「イエス様と共に行動しよう」ということで、自分達で考える様にさせ、又ものを作らせ、又探させる所の行動教授は少数ながらも大変楽しかった。安道宣先生は私達一同においしいスパゲッティをおごって下さった。28日の午後ピクニックに東山動物園に行った。全コースを皆見たので、おもしろかったが大変疲れて了った。キャンプの楽しさは、共に友となり、語り合い、食事をし、夜遅くまで話をしたり、遊ぶことです。それと共に教えられた深いことが、心深く刻み込まれていくことでしょう。

## 関青 春期研修会 開催さる

去る3月20日～21日(一泊二日)兵庫県西宮市にある甲山青少年の家にて、講師諸先生を迎えて、研修会をもった国鉄西宮北口駅から、自動車約20分ほどで、甲山の中腹になる青少年家に着く。西宮市を一望に眺めつつ晴天の時は、宝塚・尼崎も見えます。小雨の降る悪天候であった。それでも参加者21名は二日間のプログラムを有意義に持った。

今回の研修会のテーマは「交わり」で、サブテーマとして「生活の中のキリスト者」をつけ、主題講師として、崔京植牧師から、物と出来事、人と人との交わり、現実の人間関係の具体的なかわりを忠実にしていくためにも、神がキリストを通してキリストとともに、交わりを回復して下さった、そのことを現実の生活の中に証して行くキリスト者である。否キリスト者になると云うこと、韓国人であるより韓国人になると云うことが大切である。本当に交わりを回復して下さったキリストのめぐみを、わたしとなん

じと云う具体的なかわりの中で、回復してゆく者になると云うことを中心に学んだ。討論の時間は、現状の教会青年活動の問題点を指適しながら、今後の活動のために語り合った。その中で特に一般社会では許されないだろうと思われる問題が教会内では平気で許される。或は黙認されている。又、約束を平気で破ってしまう。役目柄仕方なくする無責任、無関心等が討議された。

しかしキリスト者はガラテヤ5:1～にもあるように、キリストにあって本当に自由にされた者である。この自由は……からの自由であるより……えの自由を忘れているのではない。

最後に礼拝は、裴瑛煥牧師李昌雨牧師が奉仕された。今回の研修会に参加するはずだった。会長 洪陽三、呉重信兄弟は、会場視察のために行った帰り道交通事故にあい会長は三ヶ月の負傷、呉君は、一ヶ月の負傷で、ともに大池橋アエバ外科病院に入院中である。主にある兄弟を憶えて祈ってもらいたい。

## 中部地方中学生

## キャンプ 開催

3月27日・28日の両日、名古屋教会に於て、教育部主催による中学生キャンプが開かれた。少数ではあったが、大変有意義なキャンプであった講師は安道宣、朴命俊、金承俊、申英子、姜貞子の各先生が奉仕された。特に姜先生の

## 僑文社 新舎屋建設中

福音新聞などを印刷している僑文社は現在西成教会内で営業をしていますが、そこがせまく また西成教会が近く改築するので、生野区に新しく工場をたてることになりました。

着工は4月10日、完成は6月10日の予定でこれが完成すれば、今までよりはるかに合理的な工場になるもよう。



## 聖 書

## 見ないで信ずる幸い

ヨハネ 20:24~29

1、主イエスの12弟子でさえも、復活の主に見えぬまでは復活の信仰がなかった。

(ルカ24:10~12) だから彼らは、からっぽになった墓を見て、主の葬儀のために油を用意した婦人たちと共に驚いたのである。(ヨハネ20:1~7) 10弟子が集って礼拝している時に主が復活の日の夕べあらわれた時にトマスがいなかった。(ヨハネ20:24) 主を見た事を他の弟子たちがトマスに伝えたがトマスは信じなかった。(ヨハネ20:25) これ程までに復活は多くの人に疑われた。しかし主はこのように不信の念の深いトマス始めとして、多くの人類に対して(マタイ27:62~64)見ないで信ずる信仰の幸いであることを復活体の口でもって宣言なさったのである。トマスは主と共に死に行く殉教の決意までした信仰の勇士であった。(ヨハネ11:16) 見える姿はこのようなものである。主と共にある時は決心が堅かったが主が見えなくなると疑い始める人間の弱さをよくあらわしている。

(ルカ 22:57・ヨハネ21:3)

2、復活の主を見る人だけが幸いを得るとするなら40日間という昇天まで少い日数では(行1:3) 多くの人々に会えないだけでなく、ガリラヤ地方(マタイ28:7) 以外に(マルコ1:38) 多くの地を巡回する事もできないし、全人類全世界への伝道の夢は消えてしまった筈である。(マタイ28:19~20) 信仰とは望んでいる事がらを確認し、まだ見ていない事実を確認することである。(ヘブル11:1) だから見ないで信ずることが幸いであるという主の言は永遠に真理である(コロサイ3:4) 多くの人々は弟子たちの宣教によって一日にも3,000人5,000人罪を悔い改めて信仰に入ったのである。(行2:41・4:4)

3、人間が普通考える幸福とは、即座に与えられる幸福をいうのであるが(ルカ23:39) 主イエスを通して与えられる幸いというのは、そのような即興的なものでなく、一見人間には不幸に見えることを通して与えられるものである。

(ヨハネ18:11) ヤコブは試練を耐え忍ぶ人は幸いである

といっている。(ヤコブ1:12) 人間は試練とは不幸で一刻でも早く逃がれたいと願っている。しかしそのことを忍耐をもって受けることによってより大きな幸いがあることを教えている。又、受けるよりも与える方が幸いである。(行20:35) といわれることは長

い時間をかけて信仰生活をすることによって真理であることがわかってくる。(ヘブル12:11) 見ないで信ずる復活の信仰が幸いであるといわれた主の言葉が、正しかったということは、2,000年の歴史を通して知ることができる。

(西成教会 金元治牧師)

## — 教会教育シリーズ (3) —

## キリスト教教育の重要性

(4) 教育における聖書 最近聖書学の研究は著しい進歩を遂げているが、聖書学の動向を知ることによって、キリスト教教育に与えたところの神学の貢献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出来る。わたしたちは、聖書を、歴史の中に働く神の活動の記録として解釈する。イエス・キリストの中でわたしたちにあらわされた。神の啓示は聖書に記録されている多くの出来事において知るのである。

わたしたちは、人間の歴史に展開されている救のドラマを聖書の中に見るのである。それだけではなく、聖書は、今わたしたちが信仰の決断に生きる生活にみせつな関係をもっている。またわたしたちは、聖書の中で、神が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わたしたちを信仰の世界に至るように欲しておられ破壊された神と人との関係を新たにするのである。わたしたちは、神の目的が、世界創造のはじめから、世のためであったのを見るのである。しかし人は、自分のうちに神の像を抹殺してしまい、神に服従しなかったため、エデンの園から追放されてしまった。このように、神に対する人間の関係は、不服従と反抗によって破壊され、神をはなれた悲劇において、よるべのないものになった。人は自分で、神の前に立ち帰ることができない。

しかし神は、その民と契約をたて、人が神の律法を守り行うならば、彼らの神になると約束したのである。このようにして、イスラエルは、神

の選民になった。律法と預言書に記された旧約聖書の物語は、人が如何にして、神の律法を守り行うのに失敗したかを語っている。神の救の働きは現存するが、人は「公義をおこない、いつくしみを愛しへりくだって、あなたの神とともに歩むこと。」(ミカ6:8) をしないのである。そして彼らは「公道を水のように、正義をつぎない川のように流れさせ。」(アモス5:25) なかった。なぜならば、人は神の誠命を守らないし、また守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ある。それで預言者たちは、イスラエルを、神との新しい関係に導くであろうところのメシヤを待望している。この期待が、その生涯、死そして復活を通して救主になったイエス・キリストの来臨によって成就された。それは「もし、わたしたちが敵であった時でさえ、御子の死によって、神との和解を受けたとすれば、和解を受けている今は、なおさら、彼のいのちによって救われるであろう(ローマ5:10)。この救いのドラマの中心的行為を正しく理解することが、キリスト教教育の決定的な要点である。この行為から、キリストの体なる教会、聖霊の交わり、神の家族としての共同体が生れてくる。この共同体の中で、わたしたちは福音を学び、恵みの神に一切をゆたねるのである。

— 続く —

(西宮教会 尹宗銀牧師)

## .....教会学校話し合い.....

— 京都学校 主日教会 —

3月15日夜、京都教会で、中学卒業生と教師等13名が膝をまじえて、卒直な話し合いをした。午後5時半より夕食会で「すき焼」をつつき合い楽しいムードの中で話し合いを、9時半まで続けた。校長金昌業長老が、今夜は、牧師先生、長老、先生方と、心を開いて話し合いをすることにしたが、固苦しくならないで考えていることを、卒直に話してほしいと前置きして、思いのまま話し合った。生徒側から、「幼稚科から中学卒業まで10年近い間、教会学校に通ったので、色々と感じる事が多かった。神は本当に居られるのかと一時疑問を持って悩んだが、段々、信仰と言うものが分って来て、今は、やはり聖書のまま信じるようになった。教会学校の思い出の中で楽しかったのは、クリスマスの練習、ピクニック等にかえって、いやな思いをしたことが多かった。折角朝早くから準備して教会に行っても先生が来ていない。

そして欠席する先生が多くその場限りの代用教師が教えてくれる時が多い、何でも質問する年頃だからよく分るまで質問しても先生は、真剣に答えてくれないで逃げてしまうことがよくある。いつも主題で活してくれるのだがいろんな事を沢山話して、主題がボヤけてしまう事がよくあるもっとハッキリした内容で教えてほしい。時折、先生は本当に信仰しているのか、と疑問を持つことがある。けれども私自身、まだ信仰もないのに先生を批判することはよくないと思った。

そして、よく、私は一体何を信仰しているのかと考えさせられる。先生にお願いしたいことは、生徒に好かれる先生になってほしいと言うことです。話し方、態度に先生がまっすぐになってほしい、自分に真実である先生、行いも真実な先生、一般学校の先生は卒業までの先生だ、けれども、教会学校の先生はいつまでも教会の中で一緒に信仰するのだから、只教えるだけの先生でなく、充分に話し合いのできる先生になってほしい分級の時間が短いので、礼拝終わった後でも、トコトンまで話し合っ下さる先生がほしい。充分な準備もしない先生

は生徒によくわかる。先生の本心が問題だと思います。もっと責任を持ってやってほしい。」等、思いのまま、卒直な、きびしい生徒側の発言があった。先生の側からは「日頃、先生の話など、よく聞い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たが、今、生徒たちの、きびしい声を聞いて本当に嬉しく、頼母しく思った。その反面、非常な責任感を感じた時間の点、教える内容、心の問題、信仰をもつと、しっかり持って、生徒と対話するよう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た。」等の、卒直な先生の告白があった。最後に、教会学校の先生になる気持はあるかと言う問いに対して、全部が、やりたいと思いますと答えた。高校生に進んだら、決心して洗礼を受けるようにまた、教会学校は一応修了したが、信仰は一生のものだから、一層信仰に励んでほしいとの激励に、一同目を輝やかして、次の世代に、教会を担って行く、決心を新にして、話し合いを終った。

(京都教会 田永福牧師)

西南地方  
青年修養会

※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の  
生き方※

キリストに従ってこの世へ

3月20日~22日、2泊3日福岡、金剛ユースホテルで、開かれた。24名のうち高校生が4名、主題講師に崔忠植講師、聖研に崔昌華牧師が担当この世に対する姿勢を真剣に取り組むために、在日韓国人状況の資料の作成をもって、一丸となってキリスト者の生き方を模索した。西南地方の青年会の充実した姿勢には、今後の全国青年会の歩みに、非常に明るいものを感じさせる。大いに期待したい。

× × ×